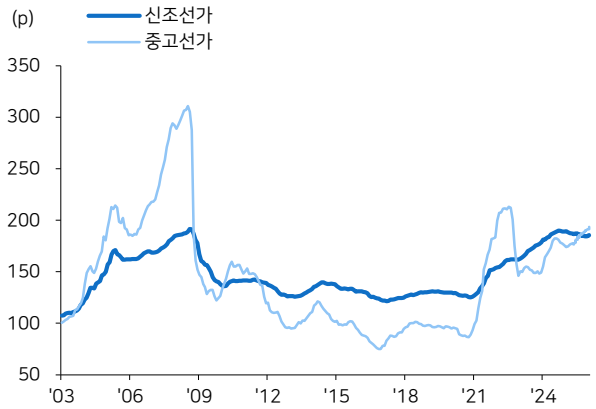
2026. 1. 13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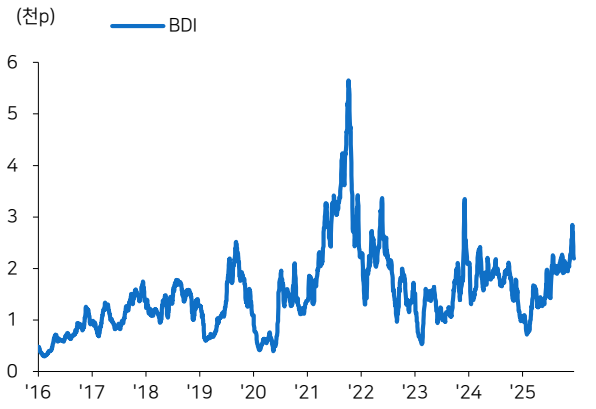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6p (-0.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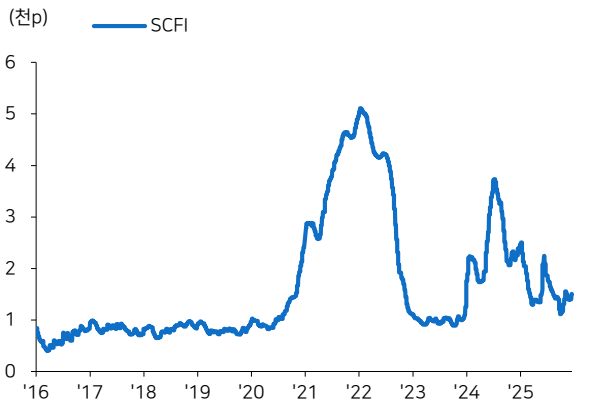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2.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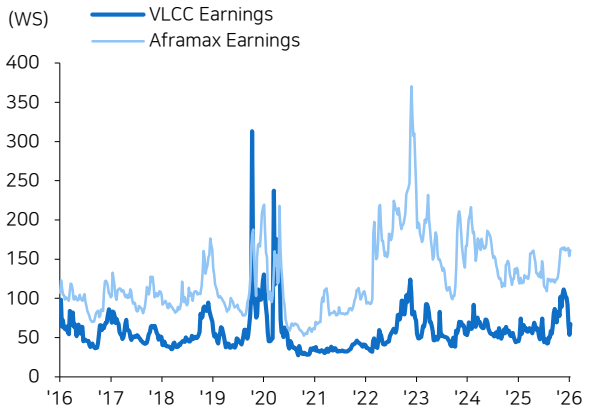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659.0p (-5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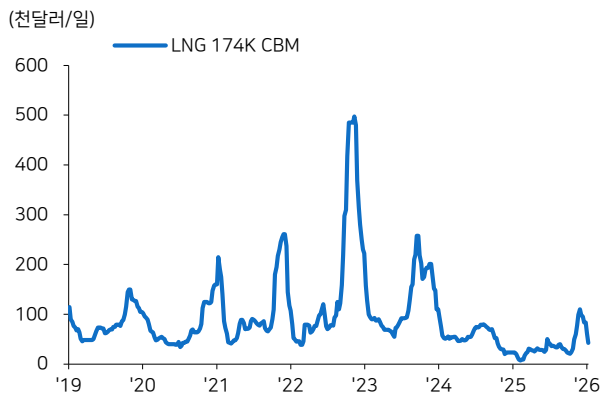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647.4p (-8.9p WoW)



VLCC Spot Rate 67.5WS (+14.0p WoW)



LNG Spot 운임 42.5천달러 (-18.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US LNG project expects final investment decision 'in the next month' — **Upstream**

Delfin Midstream이 미국 멕시코만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 Delfin LNG에 대해 향후 한 달 내 최종투자결정(FID)에 도달할 전망으로 보도됨. Delfin Midstream은 삼성중공업과 FLNG 선박 프로젝트 관련 계약의향서(LOA)를 연장했으며, Black & Veatch 및 Siemens Energy와 가스터빈 구동 패키지 발주를 위한 LOA를 체결해 핵심 장비 제조와 프로젝트 실행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알려짐. 해당 프로젝트는 루이지애나 연안 약 40해리 해역에 최대 3기의 FLNG 선박을 배치해 연간 13.2 million tonnes의 LNG를 생산하는 계획이라고 전해짐. (https://buly.kr/6tdDfaE)

HD 현대중공업, 필리핀 호위함 추가 수주 넘어 '방산 생태계' 이식 나선다 — **글로벌이코노믹**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과의 협력을 호위함 추가 수주를 계기로 함정 판매를 넘어 유지 · 보수 · 정비(MRO), 인력 양성, 공적개발원조를 포함한 방산 생태계 이전 수준의 장기 파트너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알려짐. The Philippine Star는 HD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페르난데스 주한 필리핀 대사를 예방해 신형 호위함 2척 추가 건조 계약 이후 양국 간 해군 방산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고 전해짐. 이번 협력은 조선 · MRO 기술 협력과 전문 인력 교육, 방산 · 조선 공급망 현지화로까지 확장되며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 전력 증강의 장기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도됨. (https://buly.kr/6tdDZ8L)

전문가 "캐나다 잠수함, 성능만으로 수주 못해"...절충교역 전략 강조 — **뉴시스**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잠수함 성능 경쟁을 넘어 정교한 절충교역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고 전해짐. 60조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앞두고 캐나다의 유럽연합 SAFE 참여와 ITB 제도에 따른 유럽 우선 구매 기조가 주요 리스크로 지목됐으며, 독일이 전투체계 역구매와 핵심광물 수입, 북극 기지 현대화 등 국가 차원의 패키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알려짐. 이에 따라 정부 주도로 방산뿐 아니라 에너지 · 모빌리티·우주항공 등 전략 산업을 연계한 범정부 '원팀' 절충교역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해짐. (https://buly.kr/882WRCE)

美 해군 강화 수요 확대...K-조선, 하도급 발주 기대 — **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onroe Doctrine' 대외 정책 기조로 미 해군력 확충 수요가 확대되면서, 납기 지연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 조선소에 선체 블록 제작 등 하도급 발주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보도됨. 미 해군은 차기 호위함 명칭을 FFG(X)에서 FF(X)로 변경하며 저 · 중위협 임무 중심의전투 함대 수 확대 전략을 분명히 했다고 알려짐. Huntington Ingalls Industries를 주관 조선소로 한 신형 호위함 사업과 추가 조선소 경쟁 입찰이 병행되는 가운데, 오스탈 USA와 한화그룹, HD현대중공업 등과 연계한 협업 가능성이 거론되며 한국 조선업계 전반에서 미 해군 함정 사업 참여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해짐. (https://buly.kr/613QfKQ)

HD 한국조선해양, 자체 개발 '윙세일' 해상 실증 착수 — **뉴시스**

HD현대가 바람을 활용해 추진력을 높이는 풍력 보조 추진장치 해상 실증에 착수했다고 보도됨. HD한국조선해양은 자체 개발한 WAPS '윙세일'을 HMM이 운용 중인 50,000t급 탱커선에 탑재해 시운전과 한국선급 검사를 완료하고 실제 해상 환경에서 연비 개선과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검증 중이라고 전해짐. 해당 실증은해양수산부 주관 GHG 통합관리 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 선사 · 조선 · 기자재 기업이 참여한 협력 프로젝트로 추진되며, 확보된 데이터는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의 상용화와 성능 고도화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알려짐. (https://buly.kr/5q8fmde)

Alternative-fuelled vessel orders plummet by half in 2025 amid lower newbuilding numbers — **TradeWinds**

2025년 글로벌 신조 발주 둔화 속에서 대체연료 추진 선박 발주가 전년 대비 47% 감소한 275척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신조 발주도 2024년 4,405척에서 2,403척으로 줄어들었다고 알려짐. DNV에 따르면 컨테이너선 발주는 547척으로 증가했으며, LNG 이중연료가 188척으로 대체연료 시장을 주도한 반면 메탄올, 암모니아, LPG 발주는 크게 위축됐다고 전해짐. 규제 불확실성과 시장 재조정이 발주 감소의 배경으로 작용했으나 연료 인프라 투자와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 도입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선종을 중심으로 대체연료 전환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됨. (https://buly.kr/9tC6Lee)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